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외교부 :

중국, 아프리카와 손잡고 빈곤퇴치 추진

8월 26일,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중국은 시종 아프리카가 현대화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하는 강력한 추진자이자 빈곤 퇴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중요한 공헌자라며 2024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를 계기로 계속해서 아프리카와 손잡고 빈곤퇴치 진척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림검은 이어 빈곤퇴치는 인류 공동의 사명이자 아프리카인들의 공통된 념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서 '10대 협력 계획'에서 '9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빈곤퇴치는 항상 중국—아프리카 협력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수년간 우리는 진실친성(真实亲诚) 리념과 정확한 의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과 아프리카련맹의 빈곤퇴치 협력 강화 요강>을 적극적으로 리행해왔으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의 틀에서 빈곤퇴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신화넷

다른 나라의 대 아프리카 투자 환영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8월 28일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처럼 아프리카에 대한 중시와 투

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아프리카의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고 아프리카인들이 행복하게 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신화넷

국제 평화와 안보 수호, 세계 발전과 번영 촉진
중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된 주장이자 추구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8월 30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동된 주장이자 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랑측은 2024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를 계

기로 발전도상국들이 단결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남방'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가와 발전도상국)의 힘을 모아 국제 공평과 정의를 함께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함께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중국—아프리카

‘일대일로’ 공동건설 발전 성과 청서 발표

8월 2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아프리카 국가 ‘일대일로’ 공동건설 발전 보고서> 2024판 청서가 정식 공개 발표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52개 아프리카 국가와 아프리카련맹이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중국과 아프리카간 기초시설 건설 ‘하드 련결’ (硬联通, 국제협력에서 도로, 철도, 항구 등 기초시설 건설을 통한 련결)이 새로운 단계

에 들어섰다.

중국 기업들이 참여해 아프리카 각국에서 새로 건설 혹은 개조한 철도는 루계로 1만키로메터를 초과했고 도로는 약 10만키로메터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은 루계로 약 1,000개에 달하는 교량, 약 100개의 항구, 6만 6,000킬로메터의 송전변전로, 15만킬로메터의 공간 통신망 건설 혹은 재건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 국제방송

‘중국제조’ 아프리카서 인기



8월 5일, 절강성 의오에서 세네갈 상인 술라하트가 자신이 주문한 중국 신에너지차를 자랑하며 휴대폰에 저장한 동영상 보여주었다. 동영상에는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한 주차장에 배열되어있는 하얀 오토빈

과 완제차가 보였다.

술라하트는 “나는 다카르에 신에너지 인터넷 차량 예약 회사를 설립했는데 중국의 ‘디디모텔’을 배워 운영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 신화넷

‘중국 균초’, 발전도상국 탈빈곤에 큰 탄력



8월 4일, 르완다 남방성 호예구 아프리카지역 균초기술양성반에서 림점희가 강의를 하고 있다.

/ 신화넷

8월초, 따뜻하고 건조한 르완다 남부 지방의 젊은 농부들이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중국 북경농림대학 국가균초(菌草) 공정기술연구센터 수석과학자 림점희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 80대 과학자는 1980년대부터 북건성에서 균초기술(원목 대신 풀을 사용해 버섯을 재배하는 기술) 연구팀을 이끌어왔다.

균초는 중국어로 버섯과 풀을 의미한다. 식용버섯을 재배하고 가축 사료를 제공하며 사막화 예방을 돕는 등 다용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습근평 주석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균초는 중국 및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발전도상국의 세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 탈빈곤의 길

‘균초의 아버지’로 불리는 림점희는 북건성의 빈곤한 농촌 산간지역에서 자랐다. 어릴 적 빈곤하게 살았던 경험은 그로 하여금 균초기술 개발 의지

를 더욱 불태우게 만들었다.

수십년간의 노력 끝에 림점희와 그의 팀은 원목의 대체로 식용 및 약용 버섯을 재배하는 데 유용한 초본식물 번식에 성공했다. 이는 수확량이 높고 가뭄과 염분에 강하다.

림점희가 균초를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널리 찬사를 받은 것은 1992년 스위스에서 열린 ‘제20회 제네바 국제 발명·신기술 전시회’가 시작이었다. 스위스에서 림점희는 이 기술을 더욱더 연구해 보라는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

림점희는 습근평 주석이 빈곤과 싸우기 위해 과학 및 기술적 수단 사용을 적극 지원한 사실을 이렇게 회상했다.

1997년 당시, 북건성당위 부서기였던 습근평은 념화회자치구의 빈곤 퇴치를 위한 북건성 도움의 일환으로 균초기술을 렴겨했다. 림점희는 즉시 팀을 꾸려 풀 종자와 균종을 념화의 빈곤지역인 서해고(西海固)로 가져갔다.

오늘날 균초기술은 중국 전역 31개 성, 시, 자치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빈곤을 종식시키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습근평 주석의 지원으로 파푸아뉴기니아에 균초기술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2000년에 시작됐다. 이는 균초기술을 해외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중 하나로 기록됐다.

현신과 개혁 정신에 힘입어 림점희와 다른 중국 연구원들은 세계 빈곤 종식의 사명을 안고 106개 국가와 지역에 기술을 전파했다.

해당 기간 동안 림점희는 총기로 위협하는 강도, 말라리아, 고산병에 직면했고 전기와 물이 없는 외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발전도상국의 극심한 빈곤을 목격한 그는 균초 전파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우리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향했다.” 림점희의 말이다.

◇ 번영의 식물

림점희는 르완다에서 약 4,000가구 가 이 기술의 혜택을 받았으며 일부는 수년에 걸쳐 소득이 두배 또는 세배로

“나는 중국—아프리카 친선의 작은 물줄기이다”

한 탄자니아 류학생의 중국 이야기



절강사범대학 2022년도 류학생 중국 국정 현지 고찰 계열 활동에 참가한 왕효락(앞줄)이 신강을 참관하며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 자료사진

금방 중국에 왔을 때 도로계획과 도시 기반시설이 아주 좋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람들도 열정적이었다. 중국의 발전은 나의 식견을 넓혀주었다. 모바일 지불, 택배와 배달, 공유자전거... 신기한 사물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많은 곳을 다녔고 발견과 소감을 미니 영상에 담아 인터넷에 올렸다. 이로부터 더 많은 아프리카 동포들이 진실한 중국을 료해하고 중국의 경험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기계기업에서 나는 첨단기술을 리용한 농업기계를 보았는데 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큰 계발이 되었다. 중국은 기업 강습을 각별히 강조하는데 이 또한 성공 비법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요가복장 슈퍼공장에서 4분 만에 요가바지 하나를 생산해내는 장면을 보았다. 우리에선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디서나 ‘중국제조’를 볼 수 있다. 공장에서 나는 중국제조의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피지의 기업가 세루와이아 카부카부는 “기술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7~10일 이내에 버섯을 수확하고 판매하기 시작해 가족을 부양했다.”고 전했다.

지난 10년 동안 피지에서 균초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은 2,400명 이상, 현지 재배 면적은 2,000헥타르를 상회한다.

또한 지금까지 약 350차례의 국제 세미나를 통해 1만 4,000명 이상이 균초기술 교육을 받았으며 관련 논문은 18개 언어로 소개되었다.

◇ 끝없는 실험

균초기술은 버섯 재배뿐만 아니라 사료와 비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생산을 확대하며 혁신을 지속해왔다.

탄자니아 농부인 타히야 마사웨는 균초를 사료로 사용한 이후 젖소의 우유 밀도와 영양이 개선되고 우유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비용 절감 효과도 따라왔다.”면서 “과거 다른 사료에 썼던 예산을 균초로 바꾸면서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타히야 마사웨는 “여러 측면에서 균초는 단백질 함량과 탄소 함량이 높다.”면서 “소가 다른 풀보다 균초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 림점희였다.”고 말했다.

균초는 생태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토양 침식은 르완다와 같은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르완다 당국자는 토양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작할 땅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림점희는 항상 그들의 우려를 염두에 뒀다. 그는 10년전 르완다를 방문했을 때 진행했던 실험 데이터를 아직도 기억한다. 어느 날 강수량이 2시간 30분 만에 무려 51.4밀리메터에 달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모든 비는 거대한 균초가 흡수했고 물 보존과 토양 유지에 매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균초는 행복의 풀이자 전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중국의 선물이다.”라고 림점희는 말한다.

/ 신화넷

예술과 과학기술 매력을 실감했다.

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나처럼 중국을 사랑하길 바라고 더 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를 알아가고 사랑하길 바란다. 여가시간에 나는 학교와 미니 영상 플랫폼에서 스와힐리어(斯瓦希里语)를 가르치고 있다. 언어와 문화는 가장 좋은 다리라고 생각한다. 2023년 나는 또 드라마 《밀레레존(麦乐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촬영에 참가했다. 아프리카를 지원한 중국 의료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밀레레’는 스와힐리어에서 ‘병원’이란 뜻이다. 아프리카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국 의사들은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잠비아 초대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다. “중국 형제자매들은 우리와 함께 분투했다. 얼마나 순수한 우정인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탄자니아—잠비아 철도를 건설했다. 우리의 우정을 튼튼하게 하는 우정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우정을 점점 더 리해할 수 있다. ‘일대일로’ 건설에서 백성들의 미소 띤 얼굴과 위기의 시각에 중국인이 내민 손이 바로 그 우정이다. 중국—아프리카 친선을 오래동안 이어올 수 있는 원인이다. 중국에 있는 6년 동안 나는 보잘것없지만 최선을 다해 문화교류를 했다. 이 문화교류들이 나중에 중국—아프리카 친선의 바다로 이어질 수 있는 실개천이 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 중국조선어방송넷